



濁流清論

제9호 2010년 10월 4일(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 시위

1) 교문 앞 일인 시위가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시 : 월~금, 오전 8:30~9:15 까지
- 장소 : 교문 앞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2) 울곡관 시위

- 일시 : 월~금, 11시 45분
- 장소 : 울곡관 1층 로비

방학 기간 중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화요보고대회>를 재개하였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 (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 대답	1
소식	10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11
<특류 정론>코즈	12
편집위원회 : 강명구, 구형건, 김혜선 이순일, 이재호, 한호 (편집책임)	

배경사진은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작
울곡관 앞 낙락장송입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대답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학내 현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편집위원회

8호에 이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두 번째 대답 토론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제:

1. 현재 본교는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이전 대답에서 학내외 구성원들 간, 혹은 구성 집단 간의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니까? 교수회는 각 단과대 소속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여론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대의의 기능이 우선일까요 여론 선도의 기능이 우선일까요?
4. 최근에 본교를 국립대화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자: 김준한 교수(사회과학대학), 김철환 교수(사회과학대학),
임한조 교수(정보통신대학)

진행 : 강명구 교수 (사회과학대학)

참관 : 김혜선 교수 (자연과학대학)

시간 : 2010년 9월 16일 (목) 13:00-14:30

장소 : 교수회 사무실

현 학내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철환: 대학의 사유화 시도가 문제의 본질

김준한: 김우중 재단관리인의 대학정신 죽이기 위험성

임한조: 이사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지나친 비판은 오히려 문제 악화시킬 가능성

(강명구)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 대담은 뭐랄까 주로 중도적인 관점에서 재단과 교수회의 대화 필요성을 천명하신 경향이 강하였는데 이번호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들을 통하여 학내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토론자들을 섭외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대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학내문제의 본질에 관하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저는 2009년에 이사장의 독선, 총장의 무능, 문제당사자의 뻔뻔스러움이 학내사태의 핵심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문제의 본질은 대학의 사유화**라고 생각하며, 재단 이사장이 학내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에게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이 얘기 안 해줘도 이해하는 사람(뛰어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남이 얘기해주면 이해하는 사람(영민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남이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듣지 않는 사람(우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국가 또는 다른 조직을 책임지게 되면 국가는 퇴보할 것이고 조직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저는 현 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1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섯 분의 총장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친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대외평가도 아주대학교의 퇴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참고하자면 1997년도와 비교하여 2009년도의 평가 순위는 9등정도 떨어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사장이 과연 아주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 이사장이 국내 다른 대학이나 해외대학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인의 송담대학 같은 작은 대학만 봐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건물까지 우리보다 낫습니다. 현 이사장은 전혀 학교 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고, 단지 대학을 사적인 재산으로 보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대학이 되면 사유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주대학을 발전시킬 책무를 의도적으로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번 김우중 회장이 일부 교수들과의 공식적 모임에서 ‘이사장이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해 교수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도 이사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참아 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대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 우리 대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비록 대우 인수 후에 몇 천억원을 출연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아주

대학 본교만의 연 예산이 1000억 내지 1500억원 규모로 확장된 지난 10여년만 돌아보아도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학 초창기에 출연금이 요긴하게 쓰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대학교가 10위권 내에 진입하고 위상을 높인 시기 이후의 대학운영은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기여와 더불어 열심히 일한 교수와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인 학교를 개인 것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결국은 아주대학을 지금 이 상태로 몰아넣어 골병들게 한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강명구) 김준한 교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준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원석 이사장은 **학교를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김우중씨를 대신해서 재산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대한 발전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돌아가는 데에는 어느 학교든지 법인의 역할도 있지만, 학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리더는 총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장 본인이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 소위 **학교의 리더마저도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 이사장은 학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대학교를 계속 퇴보로 몰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물러난 총장도 그렇고 그전 총장의 경우도 그렇고 한계가 있지만, 윤원석 체제에서 어떻게 아주대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냐에 대해서 단일하게 생각함으로써, 윤원석씨의 계략에 아주대학교가 말려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원석 이사장의 제일 큰 문제인거죠. 본인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소위 정신(spirit)은 다 죽여 버리고, 교수들로 하여금 점점 애정, 헌신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로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물러나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태가 오래가면 오래가는 것만큼 상황이 끝나도 상처가 치유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이사장의 대학의 구심점 없애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장이 그것을 의도해서 그랬는지 모르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전반적으로 보아 김철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보완해 주셨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두 분의 말씀에 이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임한조) 글썄, 두 분 말씀의 주요 논지는 찬성하는데, 각론에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이 있네요. 결국은 우리학교의 큰 문제가 사립대학이 사유화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재

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냐. 글썄요, 전 세계적 추세로 봐서나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더 근본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우가 예전처럼 아주 잘 나가고 있다면 김우중 회장에게 우리학교는 그냥 떡 하나 주면 되는 정도였을 것이니 학교가 썩잖았을 텐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문제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학교 교수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 교수님들은 옳고 그름은 잘 따지는데,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가 35년간 만들어온 우리학교의 칼라일 텐데... 뭐랄까 이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에 우리가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절대로 없죠. 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쥐어박기만 하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맞는 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김우중 회장과 얘기할 틈도 없었고 이사장이 오자마자 바로 김덕중 총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기를 잘해서 풀어갈 틈이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사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 왜 한쪽 얘기만 들느냐,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를 듣고, 가운데 입장에서 우리 학교를 위한 좋을 안을 왜 제시하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도저히 동료 교수에게서 들을 수 없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기 싫어요.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한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사장님을 이 사태가 터지고 난 후 한 다섯 번을 만나봤을 것인데, 그때마다 어떨 때는 ‘당신은 교수회의 입장을 대변하느냐’는 등, 온갖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교수들의 생각을 안 들으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이야기 중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우리학교의 어른이니까 우리는 존경해드려야 할 텐데. 그분은 뭐라 그럴까, ‘존경하는게 뭔데, 너희들이 나를 존경한 적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는... 물론, 사람은 다들 잘못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신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학교는 내가 보기에는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해결책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죠?

(임한조) 이사장님을 설득하기는 어렵지요. 나도 이사장께 대놓고 ‘이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해

서 이야기는 해야죠.

(강명구)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철환)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견해가 다릅니다. 교수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물론 그것이 교수들의 좋은 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교수회이고, 따라서 이사장이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한다면, 의당 교수회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협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는 논리 속에 숨었지만, 지금은 교수회가 법제화된 학교의 기구가 아닙니까? 나는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이사장을 자꾸 만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정식 라인인 학장과 (정상적인 상황으로서 총장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총장을 통해서 원하는 얘기를 전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교수들의 공통된 생각 같은 것은 교수회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교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자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사장 대접을 안 해 줘서 이사장이 더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면, 대접받게끔 해야 했지요.** 13년 동안 학교의 위상을 대학평가 10위권 밖으로 떨어뜨리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총장을 5명이나 임명하고선, 다시 또 총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겠다고 얘길 하고 있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부끄러워서라도 다음 총장은 내가 안 뽑겠다고 하고,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뽑겠다고 해야죠. 내 권한이니까 총장선임은 내 뜻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과거 김준협 이사장님은 똑같은 정관과 똑같은 사립학교법 아래서, 똑같은 이사장실의 이사장 의자에 앉아서 교수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좋은 전통을 다 무시하니, 현재의 이사장을 과거의 이사장님과 비교하는 것이 마치 파리를 새에다 비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현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방적으로 총장들을 뽑아 생긴 문제들을 생각하고 다음 총장 선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

김철환: 13년간 일방통행한 이사장의 편협성이 불통의 원인

김준한: 이사장과의 소통은 더 이상 불필요

임한조: 기업배경을 가진 이사장과 대화노력 부족인 교수회 모두 문제

(강명구) 자연스럽게 얘기가 구조의 문제에서 소통과 한 개인의 문제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대담에서도 소통이 많이 얘기되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방적이어서 소통이 안됐다는 지적입니다. 왜 이사장은 교수회를 인정 안 하고, 교수회는 이사장에게 굉장히 비

관적인지? 무엇 때문에 서로 서운한 면이 많고 대화가 안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철환) 이사장이 편협해서 그런 겁니다. 단적인 예로, 총장을 재단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들이 반대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 권한을 다 존중해왔어요. 단지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내 구성원들이나 아주대학교와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총장으로 선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사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총장을 뽑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 박종구 전 차관을 총장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사람을 정년보장 교수로 안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강명구)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소통부재의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김준한) 뭇 때문에 그런지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풀릴 수 있는 대상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가 13년 동안 봤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그분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특히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분하고는 **소통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분보다는 오픈 마인드 된 사람, 즉 **김우중씨나 다른 대우측 사람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원석씨가 어떻게 보면 여기 일을 하러 와 있는 심부름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충실히 수행하는 굉장히 좋은 일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지, 이 일꾼한테, 소위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생각해보죠. 이분은 법학과 나와서 70년대 말부터 기업에서 노조와 인사를 다뤘던 분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그 방식이라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에 익숙한 분이라, 그런 습관이 지금 교수들 대하는 데에도 상당히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교협 총무도 해봤고,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김철환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교수들이 거의 다 양보를 했습니다. 교수들이 입으로만 반대했지, 뭐 정말 반대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김덕중 총장 때만 빼고는 사실은 교수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로만 했지, 누가 나서서 실력으로 어떻게 한 일도 없고 이사장한테 대단히 모욕을 준일도 없고, 굉장히 점잖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소통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런 노력은 그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저분은 나가게 돼있으니, 차라리 내부 결속을 하든, 저분 나가라고 백일기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많은 교수들이 동의를 한다면, 정말 과격하

게 총장실이나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의 소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임한조 선생님께서 이사장에게 ‘골고루 만나라’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향된 일부 사람들만 만나고는 소통했다고 합니다.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교수회가 우리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소통을 원하면 교수회와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강명구) 자연스럽게 3번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사장과 교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김준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교수회에서 내부적인 소통은 잘된다고 보시는지요? 임한조 교수님, 김준한 교수님의 ‘소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불통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또한 교수회 자체 내에서의 소통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한조) 앞부분은 단순한데, 뒷부분 질문이 어렵네요. 첫째, 이사장님을 상대로 설득, 소통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김준한 교수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데, **회사에서 평생을 땀과 굶으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신 분**하고 대학교수로서의 교수사회에서 생활한 사람의 철학은 다르겠지요. 서로 이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나보고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나는 이사장님을 만나면, 벽에 부딪혀 버린 기분이고 그렇거든요. 나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사실은 교수회나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만났는데, 한 이주 전에도 만났어요. 내가 안 만나려고 했는데, 누가 나라도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러고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했더니, 이사장님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학교의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양쪽이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92년, 93년도에 연구처장 할 때, 고등기술연구소에 임효빈 부원장이 있었는데, 대우빌딩에서 2시간에서 4시간가량 그 사람 만나면, 쓰러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내가 연구처장 하는 이상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얘기해야 했지요. 어떨 때는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학교 보직교수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 만나면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교수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회에서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박영무 선생님을 누가 돕는지 모르지만, 교수회는 이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박영무 선생께 나도 이제 힘들어서 만나달라는 부탁을 들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우리학교의 평교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나 하기 싫지만, 잘 생각해 보면, 현 사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안 되더라도 풀려고 노력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 그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갈등은,

이사장은 ‘내 졸병은 내 애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사장님은 ‘교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내 구성원 간의 소통, 아마 그게 우리학교에 닥친 더 큰 피해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내구성원간의 소통이 진짜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전에 **박종구 총장직무 대행이 테뉴어를 받아 교수로 올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세계 반대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총장의 행정 사항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총장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박종구 전 차관을 특임교수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난 공대 교수들 몇 분도 그런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나는 ‘총장이 그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나는 모르지만 총장이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교수들마다 다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수회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지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명구) 박종구 전 차관 건을 볼 적에 교수회가 중간에서 소통을 잘못했다, 교수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안됐고 지각이 났었다. 그런 문제일까요?

(임한조) 예를 들어서 박영무 선생님께서 교수회의 의장으로 왔을 때, 교수회의 지지성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영무 선생이 무엇을 피력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교수들이 박영무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교수회 내에서 박영무 교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세력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보통교수들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학을 자신이 생각한대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직을 갖고 있지 않는 교수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뒷방 늙은이로 가만히 있지만,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김철환) 잘못된 학교 일 (예를 들어서 특임 정년보장교수건)에 대한 의사표현은 평교수들도 해야 됩니다. **평교수들이 대학은 어때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차관이 받을 전관예우를 이용하기 위해 학교로 데려오는 것은 반대 안합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르지만, 그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아까 정확히 짚으셨는데 특임교수직을 몇 년 주는 것은 몰라도, 정년보장 교수로 특별임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교칙 21조 가 항에 보면, 학문적 업적이 수월하거나 사계의 권위자인 경우가 정년보장 특별임용의 대상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eminent scholar입니다. 나는 박종구 전 차관이 eminent scholar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특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냐는 것에 대해 이의

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학교 일이라 하지만,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교수 특별임용이 낙하산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박종구 전 차관이 정년보장이 않된 특임교수 정도로 들어왔다면 아주대학교 교수들이 별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무리하게 테뉴어를 줬고, 더군다나 퇴직공무원 특별임용 1호로 들어온 것이라 우려가 큼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계의 권위자 또는 eminent scholar라고 주장할 각 부처의 역대 차관들이 수백 명 이상, 천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대학의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식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이 **경영자 출신으로 배경이 다른 것을 참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어느 정도 화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있었으면 이제는 대학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년 동안 독선적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서처럼 ‘이거 내거니까, 내가 당신들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잔말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기본자세가 학교 발전에 장애가 됩니다. 현 이사장의 자세가 과연 대학교라는 사회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논의와 판단의 기본적인 기준은 학교의 발전입니다. 이사장 식으로 해서 학교가 잘 발전됐다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3년간 그런 식으로 한 결과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학교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관행, 문화와 충돌하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킨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명구) 지적하신 문제 중에 두 번째로, 교수회가 박종구 전 차관 문제를 거론하느라고 소통문제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셨는데, 내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 따로 있고 교수회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교수들이 교수회입니다.** 교수회의 현재 의장이나 총무는 곳을 일을 맡아 하는 우리의 대표일 뿐입니다. 교수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자리에 참여해 보면 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교수회에서 화요일 보고대회를 계속한다고 해서 율곡관 로비에서 모였을 때, 이영현 재단 상무이사가 집회장소를 내려다보더군요. 아마 ‘일부 소수 교수들이 모여 있다’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의도 있고 학기 초라는 이유 등등해서 그날 화요일보고대회에 교수들이 많이 참여 못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교수회에서 일부 교수들만이 극렬하게 움직인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학부에서 차기총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안과 재단이 이번엔 던져 놓은 안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련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 머리 아프게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과거와 같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주대학교 구성원들

의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총장을 뽑는 과정을 거치자는 안과, 총장선임은 재단이 하는 것이니 다른 의견은 필요 없고 중간에 평가만 해서 올리면 참고하겠다는 재단 안과의 차이입니다. 왜 그 차이가 부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수회의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교수회 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교수들이 전체교수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직접 의견을 주시거나 교수회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자연대에서 학장임명과 관련하여 개교 이래 전무후무한 회한한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총장대행이 학장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침범당해서 불쾌하다며, 자연대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장 제청을 독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총장도 단과대학 교수들의 학장후보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고 학장 제청권이 침범 당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학장후보 제청 권한이 있다 해도,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존중하며 행사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자연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는 화요 보고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다른 교수들에게 설명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수회를 교수들과 이분화 시키는 식의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조) 지금 김철환 선생님이 굉장히 말을 왜곡을 하셨는데, 제가 교수와 교수회를 이분화 시켰나요?

(김철환) 강명구 교수가 질문하신 내부소통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수회의 역할

김철환: 교수들의 참여 부족 아쉬워, 교수 자신이 곧 교수회임을 깨달아야

김준한: 교수사회 의견수렴 방식 재고 필요, 승진 등 이슈도 다루어야

임한조: 교수들의 다양한 견해를 공평하게 반영 못한 아쉬움 있어

(강명구) 교수회가 소통의 매개 기능을 충분히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수회와 소통이 편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쓴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교수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교수회의 구성원들인데, 참여도 안하면서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견해를 말씀하신 것인데, 다른 각도에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교수회가 조금 멀지 않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에 대변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임한조) 각 단과대학별로 대의원을 선정해서 교수회에 보내는데, 그 사람만 교수회하고 다른 사람은 안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솔직히 제안하고 싶은데, 박영무교수가 교수회 의장이 되었을 때, 만약 좀 더 디테일하게 물었으면, 박종구 전 차관의 테뉴어 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 찬성하는 사람이 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대와

정통대의 정서입니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공대와 정통대의 교수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박종구 전 차관 왔을 때, 한 건 편하게 좋은 것 한번 해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대해 ‘내가 생각할 때 그 태도는 우리 멘탈리티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것’ 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정당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좋으면 무조건 하는 것이라는 정신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 대학이 한 단계를 점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점프를 도와주면 좋은 것이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강명구) 공대나 정통대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교수회에서는 이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김준한) 저는 두 분과 생각이 다른데, 어차피 대의제도라는 것이 전체 여러 명의 의견을 서너 명이 모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과대학 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수회를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개인적인 호불호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는 교수회가 얼마나 명확하게 갈 방향을 제시하는가와 대의원들의 문제라든지 성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학내사태가 급세 어떻게 깨부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수회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별로 없는 가운데, 액션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명만 계속 낼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회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교수회 대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정황을 교수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슬슬 교수회의 힘이 빠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회 정통성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수회의 대표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교수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에서 대의원들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교수회에 반영하는 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 얘기를 하셨는데, 글썄요. 저는 의장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의원을 거쳐 의장이 선출된 것이고, 의장 나름대로 리더십의 특징이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선출을 통해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부탁해서 의장을 맡으신 것입니다. 고사하다가 맡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현 상황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의 경우에, 이슈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윤원석 이사장이 교수들을 만만하게 보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이번에 긴급 승진문제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결정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아주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이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한) 두 단과대학에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승진 최저 기준이라는 것을 충족한 조교수들에 대한 승진추천서를 학장들이 써서 인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이 단과대학들의 최저 기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승진대상자들은 규정된 승진 최저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당연히 그것대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본인들의 전공과 다른 학문분야를 모르니 다른 단과대학의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장들이 추천서를 썼으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해당 단과대의 기준이 낮아서 승진을 못시켜주겠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논란 끝에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한사람은 과반수를 겨우 넘어서 통과시키고 다른 두 사람은 탈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주대학교 교수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난 4, 5년간의 **어설픈 성과주의**의 결과입니다. 물론 성과가 있는 분들을 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깔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학장자율제 같은 이름으로 포장하고, 내용은 속빈 강정이고, 결국에는 교수들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별 효과도 없는 성과지표를 내세우고, 하다못해 수업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평가점수를 깎고, 뭘 안하면 안식년 허가 안하고와 같이 계속 교수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어설픈 성과주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어설픈 성과주의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행정개혁을 한 결과를 평가해 보면, 성과주의는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대부분 실패하고,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 후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비가 많지 않으면 성급한 성과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전략적인 행태가 만연하게 하여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가 어설픈 성과주의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픈 성과주의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고 성과도 못 내면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벌칙 얘기나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강명구) 학교의 정책적인 방향들이 교수들의 사기를 올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소통이 일방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김철환) 그런 문제도 본질적으로 이사회가 교수승진을 자의적으로 처리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연구 실적이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을 재단에 비판적이라고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승진을 보류시킨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학교의 원칙을 그렇게 훼손하니 학교의 규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대학의 규율이 지켜지려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명구) 지금 김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수회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교수 사회가 겪는 중요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본부가 마음대로 하는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김철환 교수님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한조) 거기에도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저는 김준한 교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승진과 관련된 일은 지금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7, 8년부터 있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학에서 올라오는 것을 한 학기 정도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고 학장들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반쯤이 처장이 들어있고 학장도 있었는데, 그때는 논의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느 정도 승복이 되었지요. 기준이 낮다고 해서 다음에 보자고 해서 해결이 된 적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승진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어도 상식수준에서 원만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통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은 결정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결정의 당위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같이 좀 잘해보자고 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문제로 귀결되고, **소통의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자, 교수, 중앙인사위와의 문제인데, 사실 **중앙인사위에서 연구업적을 좋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통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준한) 제가 말씀드린 어설픈 성과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기 눈만 기준이 되고 상대방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교수들의 승진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직 교수들은 논문 쓸 생각도 안하면서 힘없는 젊은 교수들에게만 20, 30점 승진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러곤 그 점수를 만족시켜도 승진에서 떨어뜨리니 젊은 교수들이 어떻게 받아 드리겠습니까? 아예 점수를 몇백점이라도 더 올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소기준을 200점이라고 하던지 할 것이지, 사후에 기준을 변경하니 중요한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아무 룰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어설픈 성과주의라는 것입니다. 윤원석 이사장이 한 행동이 알게 모르게 지난 몇 년간 우리 학교에 영향을 주었고, 총장과 처장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보직교수들이 아무 의식 없이 이를 따라하고 있으며, 이제 일반 교수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임한조) 제게 그것보다 더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직원들이

전화해서 그 행정사항을 하지 않으면 몇 점 감점이라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학교가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군요.

(김준한) 직원들까지도 규정 운운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다 총장, 학장이 이미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규정이란 것이 원래 교수들 강의 잘하게 학교가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우리 대학의 지금 상황은 교수들 꿀밤 때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안 하면, 평가점수 감점 몇 점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국립대학화 안

김철환: 대학 지배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긍정적 검토 필요

: 삼류족벌대학 피하기 위해 대외투쟁 필요

김준한: 현실성 없는 조롱거리 위험

: 교수회 중심 구심점 만들며 기다려야

임한조: 현실적으로 불가능

: 외부지원 호소 불가피하지만 재단은 먼저 교수사회에 귀 기울여야

(강명구) 소통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학의 행정내지는 정책 구조 왜곡까지 연결된듯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가장 최근에 조중열 교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차라리 아주대학을 국립화시키자는 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그 가능성 여부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지요.

(김준한)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대학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분규나면 국립대 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대학을 운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사립대학을 국립화 하는 것은 전혀 그림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립화 논의가 재단에 압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면, 협박이 아니라 재단의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도 그렇지만, 경기도민들이 아주대학교 도립화에 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성 하더라도, 실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립학교법 체제 내에서는 국립화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인천대학은 시립화를 거쳐 국립화 됐습니다. 또한 아주대학은 건설하고 병원도 있어 국립화가 더 유망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준한) 공립법인으로 만들어요? 무슨 힘으로?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볼만은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철환) 김준한 교수님과 같은 맥락의 생각인데, 다르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주대학교의 위상이나 아주대학교가 가야될 방향이라는 기준에서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는 다른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자본들이 인수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국립대화 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안 될 것이니까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자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등 안에 들던 대학이 20등 쪽으로 순위가 밀리면서 자꾸 구성원들이 잘못됐다고 뉘달하는데, 내가 보기에 돈 안 들이고 좋은 대학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법인은 법정전입금 조차 다 안 내고 (못내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최근에 전입금이 조금 늘었다지만 아직도 미전입금이 100억원을 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리소스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각도에서 독립이건 국립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우려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틀린 방향이 아니라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도해 보는 과정에서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단이 학교를 보는 시각, 특히 교수를 보는 시각 때문에 벌어진 일들은 지방의 족벌대학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재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이사회에서 승진 보류시키는 것은 족벌대학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적어도 아주대학교 교수들은 만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립대학화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들끼리 내부토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로 대우에 대한 의리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대우가 지원해 줬을 때는 꿈쩍 못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조하다가도 김우중 회장 얘기만 나오면 나서지 못하겠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의리 지키겠다고 아주대학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입니까? 사적인 의리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적인 관점에서 아주대학교가 발전하는데 필요하다면 사적인 의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설령 실현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국립대학화는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현 재단에 대한 비판적 다수가 형성되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상당히 건설적인 토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다음 질문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김우중씨를 움직이려면 밖에서 떠들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에 대해 교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로 가져가면 대학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핫이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한조) 국립대학화 문제를 저한테 안 물어 보셨는데, 같이

얘기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 대해서 김준한 교수님 의견과 좀 더 가까운데, **현실적으로 국립대학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설사 국립대학, 도립대학이 되더라도 아주 힘들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김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단이 자체 구성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국립대학으로 가든 안가든 간에 아주대학교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재단은 반드시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재단이 교수들의 의견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교수들의 민심이 흐트러질 것이고 그러다가는 국립대학이나 도립대학이 되기 전부터 아주대학교가 흔들리고 지배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를 잘 운영하고 싶으면, 재단은 교수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강명구) 만약에 안 들으면 그 때는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도 될까요?

(임한조) 그 문제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의 노조구성과 관련된 문제와 일맥상통하지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한다고 온갖 탈법을 하는데, 노조가 어떤 무리한 얘기를 하든지, 잘 싸우든 잘못 싸우든지 간에 근로자는 자본가에 대해서 월등히 열악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단결을 해서 자본가의 횡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조의 지도자일 때는 칼날 위에서 춤추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지원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구성원 간에 다를 수 있으나 원론적으로 말해서 약자는 몽칫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외부의 지원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죠. 그러므로 그렇게 사람을 안 몰아가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지요. 마찬가지로 대학운영에 관한 아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학교의 해교행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학교에 해교 행위가 되기 전에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안 나가도록 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해결방안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한) 더 이상 얘기 할 일도 없고, 대화는 안 될 겁니다. 전두환이나 박정희 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대화하자고 민주화 얘기를 했지만, 전혀 안 받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입니다. 윤원석 이사장은 그런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10년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구심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윤원석씨가 구심점마저 없애 버렸다는 것이 아주대학에게는 참 안 된 일입니다. 그런 구심점을 만들면서 **현 체제가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 교수회가 취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의 행태를 용인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비판하면 일말의 양식이라도 있으면 양심

의 가책은 받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교수들끼리는 교수회 또는 교수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구심점은 교수회인가요?

(김준한) 구심점은 당연히 교수회입니다.

(김철환)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13년 동안 총장선임에 계속 실패하고서도, 지금처럼 이사장이 변하지 않고 또 총장선임을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밀고 나가면 결국은 아주대학교가 족벌대학, 3류 대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정년을 두 학기 남겨 놓고 학내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제 의견을 피력하는 까닭은 학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못해서 후배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안해서 입니다. 우리가 처신 잘 했고 나가서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교수들을 이렇게 만만하게 못 봤겠죠. 지금 나가는 마당에서도, 아주대가 삼류 족벌 대학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막아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모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석 이사장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13년 동안 대화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임한조) 결국은 대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학은 공공재의 성격이 많죠. 그러나 대학이 공공재의 성격이 크지만 대학의 성격은 세월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공공재적인 면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박영무교수가 의장이 되었을 때, 일이 어느 정도 타협 쪽으로 되어서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교수회가 앞장서 타협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기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강명구) 정확하게 각각의 칼라를 잘 드러내 주셔서 교수님들이 현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모델들을 세 가지 정도 생각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인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식

I. 신임 총장 선출 건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후보자심사(안) 작성에 대해 교수회는 진행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학내 구성원의 총장 후보 제청권이 무시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단 이사장은 이제라도 교수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이번만큼은 학내 구성원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총장선임 방안을 규정화함으로써 매 4년 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 노조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문회에서도 총장 후보 제청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아무래도 총장 후보 제청권입니다. 대개의 학내 구성원들은 이를 총장 선임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의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는 반면, 재단은 이를 총장 선임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경로를 통한 대화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구성 단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번 학기 내에 이 문제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I. 펀드 및 회계분식 건

대학본부가 평의회의 제안을 거부하고 “본 사안에 대한 감사는 결과에 관계없이 당해 내부감사로 종결함(감사결과에 따른 외부감사 진행 불가)”라는 추가 조건을 제시한 이후 아

직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이 건에 대해서 커다란 진전이 없었습니다.

III. 박종구 전 차관 교수임용의 불법성에 관한 건

이미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통해서 알린 바와 같이, 교수회는 박종구 전 차관의 교수임용 과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상당한 근거--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를 확보하고 이를 재단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교수회는 9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박종구 전 차관의 정년보장 교수임용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요청

은 현재 교과부 내 해당 부서에 배정이 되었고, 학교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9월 하순에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 국정감사 기간이므로 다소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결과를 통보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자연대 학장 선임 관련

주지하시는 것과 같이 자연대 교수들이 신임 학장 후보를 선출하여 총장직무대행에게 추천하였으나 재단 이사회는 자연대 교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 학장의 연임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자연대는 9월 2일(수) 교수총회를 열어 이러한 총장직무대행과 재단의 조치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연임된 자연대 학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지만 아직

사직서는 수리 되지 않았고 대학 본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 사안의 핵심은 이 문제가 자연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교수들의 학장후보 선출관례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V. 승진 임용에 있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임의적 기준 적용 건

주지하시는 것과 같이 단과대학장이 제청한 승진임용 요구가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거부된 예가 생겼습니다. 교무처장 등 관계자로 부터의 확인 결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의 설정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여러 교수님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수집하여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탁류청론> 8호 본 난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습니다.

"지난 호에서 문제제기 하였던 바, 교수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 이슈를 다루고자합니다. 다음 번 주제는 승진 심사 건입니다. 핵심은 승진자격에 관한 단과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중앙인사 위원회가 얼마만큼이나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한 규정 적용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원고 청하면 물리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권리는 법전 위에서 잠들고 외치지 않는 소리는 누가 물어가며 들어주지 않습니다. 꾸벅. 편집위원회 일동 드림."

편집위원회의 간곡한 부탁말씀에도 불구하고 승진관련 규정에 관한 정책이슈 토론은 사정에 의하여 실기 힘들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진은 이해관계 양측 당사자라고 생각되는 대학본부를 대표한 교무처장(홍 만표)과 문제제기 단과대학중 하나인 사회대 교수분들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긴 통화 끝에 교무처장께서는 놀랍게도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아쉽게도 막판에 불가(不可)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 오셨습니다. 첫째, 현직 교무처장으로서 원고를 게재할 적합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둘째, 관련 규정은 이미 자세하게 규정집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교수로 돌아가면 그 때는 자세하게 토론해 주겠다.

교수사회가 보낸 반응도 유사하였습니다. 문제제기 당시의 다소 흥분된 반응과는 달리 (직간접으로 접한 바) 다음과 같은 연유로 원고를 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승진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교수사회의 일치된 견해를 찾기 힘들다. 둘째, 문제 제기를 위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실효성 있고 설득력 높은 주장을 펼치기 힘들다. 따라서 승진 피심사대상인 교수들의 비우월적(非優越的)위치를 고려하여 교수회가 대신 문제제기를 하여 주기 바란다.

그 결과 승진 관련 정책 이슈에 관한 논란은 관련 규정을 숙독하시거나 이번 호 대담토론 기사 중 김 준한 교수님의 관련 사안 문제제기 부분(7쪽)을 참조하시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불가피하게 관련 기사를 '핑크' 내면서 잡다한 상념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금번 호 대담 기사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교수회와 교수들 간의 소통 불충분 원인 중 하나로 승진과 같은 정책이슈를 교수회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웅성거림은 있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수회 의장으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던 의과대학 이 일영 (명예)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장애인 복지법안을 논의 중이던 미국 의회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한 마디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였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구가 생각납니다. "대접받으려면 대접받게 행동하십시오"고 이사장께 드린 쓴 소리가 교수사회에도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탁류 청론> 퀴즈

편집위원회

아래 글은 모 시사주간지 최근 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남의 대학 이야기라 인용하기가 요즘 아이들 말로 좀 '뽕쫂'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정체성과 대학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화가 아닌가 하여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네모 칸을 메워 보십시오. 네모 칸을 메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인용문에 이어 주어진 <힌트>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연전(*)이 치러지지 못한 적이 있었다. 1983년 가을이었다. 당시 고연전은 수만 명의 학생이 '합법적'으로 거리에 나설 기회였다. 경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를 염려한 전두환 정권이 행사를 취소시켰다. 고대생들이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경찰의 학내 진입과 연행이 불 보듯 뻔했다. 고대 총장이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대신 총장은 학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학생 제군들, 몸을 다치지 마라." 다음날 학생들은 무사히 학교 밖으로 나갔다. 총장이 나서 당국과 협상한 결과였다.

이듬해 가을 고연전 무렵, 전두환 정권은 총학생회 간부를 제적시키라고 전국대학에 명령했다. 모든 대학이 그 명령을 따랐다. 오직 고대 총장만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다 총장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정권마다 총리직 제안이 있었지만 번번이 거절했다. 장준하와 함께 광복군을 이끌던 그는

□□□ 총장이었다.

(*) 인용자 주: 글쓴이가 고대 졸업생인가 봅니다. 연대 관련 분들은 연고전으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힌트

1. 이 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현 윤원석 이사장 바로 전임자였다.
2. 이 분은 온당치 못한 것에 대한 거절이 체질화된 분으로 보이는 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학원 이사장이셨던 이 분에게 대우 채무에 대한 기채보증을 요구하자 거절하여 교체되었던 것으로 (아니 스스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임 이사장은 물론 흔쾌히 수용하였다.

경품안내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교수회 사무실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학내사태가 순리에 맞게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화요집회에서 발언할 기회와 동시에 <탁류청론>에 "참여 없이 권리 없다."는 제하(題下)의 원고 게재를 허(許)하여 드립니다.

1. 법무부는 김우중氏 18조원 추징금, 엄정하게 집행하라!
2. 이사회는 무능-독선-불신임 윤원석 이사장, 해임하라!
3. 재단은 박종구氏 불법교수임용, 회계부정, 시정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